

설교제목: “나그네 신앙”

설교본문: 히브리서 11 장 13, 14 절

성경의 신앙의 관점에서 인생을 사는 태도를
정착자, 방랑자(집시)와 나그네로 보고자 한다.

정착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산다. 자기가 살 곳을 정한다. 집 짓고, 창고를 만들고, 이웃과 관계를 만들고, 거기서 자신과 가족이 영원히 평안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

방랑자: 세상의 제도, 관계 매이기 싫어한다.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냥 주어지는 데로 산다. 정착 못하고 집도 없으며 무언가 짐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날 편하고 즐겁거나 그냥 살아 있으니 산다.

나그네: 이 세상에 정착하여 사는 것 같으나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았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산다.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께서 주실 왕국으로 그 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 백성이 되어 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매이지 않고, 짐도 가벼우며 미련도 없다. 자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함으로 늘 활기차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더 나은 세상, 곧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상을 소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일찍부터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을 나그네가 되게 하여 훈련시키셨다.

아브라함이 그렇다. 믿음의 조상과 모세가 그렇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잃고 자신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애굽 땅 중 되었던 땅에서 살던 삶을 잊지 말고 살아라!

출애굽기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6: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24:18 너는 애굽에서 중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고 성공적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애굽 땅에서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시작되었다.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1: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영생토록 살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신앙인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정착민처럼, 방랑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나그네는 같은 목적지를 가지는 나그네와 함께 한다.

정착민과 방랑자들과 어울리면 자신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거나 아무 것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 같은 목적지를 가진 나그네와 함께 힘을 모으기도 바쁜 나그네의 삶이다.

둘째, 나그네는 장막에 거하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텐트에서만 산다는 말이 아니다. 자족할 줄 알고 자신의 필요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사는 삶을 말한다.

생활과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내 소유와 수입이 될 수 있다. 이 수입을 위해 창고를 짓는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이다.

꼭 필요한 것 이외는 내 것이 아니다.

물론 남들보다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쓰지도 않을 것을 모으고 저장하는 일은 죄악이다.

잘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부자이다.

셋째, 나그네는 약속의 땅을 그리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사는 주인처럼 산다.

좋은 땅이 거저 주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농부는 그 땅이 아무 의미도 없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짐만 된다.

아무리 좋은 차를 주어도 면허증이 없고 운전할 줄 모르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 되어야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준비를 하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일을 배우며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영생을 살 준비를 하자!

나그네 삶은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기간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 준비 기간이다. 언젠가는 본향 곧 하나님 나라에서 나그네가 아닌 그 나라의 기업을 얻어 살 날이 올 것이다.